

광주시의회, 80여개 안건 몰아치기 심의

광주시의회가 출연 동의안과 민간위탁 예산중액 동의안 등 80여 건에 이르는 안건을 단 하루만에 처리키로 해 부실 심사 우려가 제기되는 등 뒷말이 나오고 있다.

17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18일 제26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이어 폐회일인 25일까지 8일간의사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에는 일반 안건 처리와 현장 방문, 현안 청취, 심사보고서 작성 등이 이뤄질 계획이다.

4개 상임위별 활동은 개·폐회일과 주말, 휴일을 제외한 나흘간 진행된다. 그러나 안건 처리는 대부분 19일 하룻동안 일괄 처리키로 해 '몰아치기 심사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이번 회기에 심의해야 할 일반안건은 4개 상임위 통틀어 모두

8일 회기 중 사실상 하루만 심사

부실심사 우려·편의주의 지적도

85건으로 이 중 81건(95%)이 19일 하룻동안 처리될 예정이다.

상임위별로는 행정자치위원회 20건, 환경복지위원회 24건, 산업건설위원회 23건, 교육문화위원회 18건 등이다.

교육문화위원회만 19일 시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14건, 20일 시교육청 소관 4건을 분리 심의할 뿐 나머지 상임위는 적게는 3개, 많게는 7개 소관 부서 안건을 일괄처리한다.

그러나 상정된 안건 대부분이 차이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청년센터 위탁예산 중액 동의안, 민주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시립 제1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광주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등 시 예산과 관련된 사전심사가 많이 밀도있는 심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본 예산과 함께 끼워넣기식으로 처리됐던 민간위탁 동의안과 출자출연 동의안이 사전심사 강화 방침에 따라 상임위 심의를 우선 거처도록 하면서 안건이 크게 증가한 만큼 이를이나 사흘에 걸쳐 '형미경 심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동의안 등은 추후 예산 수립의 근거가 되는 만큼 꼼꼼

한 진단과 심의가 필요하다"며 "상임위 회기가 나올 동안인데 하룻만에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나머지는 자료 수집과 현장방문으로 메꾸는 건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압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시의원은 "안건이 많아 부실 심의 등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본다"며 "의회 전체, 또 상임위별 내부 일정을 고려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 전문위원실 관계자는 "이번 회기는 예산안이나 결산안과 맞물려 열리는 게 아니라 조례안과 규칙 규정안, 동의안 등 일반안건만 상정된 데다 각 상임위별 형평성 등을 따져 일정을 짰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서은홍 기자

술 마시고 선박 운항한 60대 선장 적발

목포해양경찰서는 16일 오후 12시28분께 전남 진도군 진도항 선착장에서 술을 마신 후 선박을 운항한 손모(61)씨를 음주운항 혐의로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전선적 556급 E호 선장인 손씨는 이날 오전 9시50분께 진도 쉬미항을 출항해 진도항까지 18.7km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항한 혐의다.

손씨는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086%으로 확인됐다.

10월 한달간 '가을 행락철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해경은 평소 손씨가 술을 마신채 자주 운항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E호를 관리선박으로 지정,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다 선원 교체를 위해 이날 진도항으로 입항하는 손씨를 적발했다.

해경은 손씨를 상대로 음주운항 경위를 추가 조사하고 해상안전법으로 입건할 방침이다.

한편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종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0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50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여수산단 협력업체 직원 출근 중 숨져

17일 오전 8시47분께 여수국가산단 내 A사에서 출근하던 협력업체 직원 서모(49)씨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서씨는 이날 출근길 도로에서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A사 응급구조사 2명이 동승한 구급차로 광양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전 9시 51분께 숨졌다.

서씨는 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심폐소생술을 받기도 했으나 결국 회생하지 못했다. 병원은 서씨에 대해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고속도로서 오리 운반용 트럭이 승합차 추돌

17일 오전 4시30분께 영암군 화산면 남해안고속도로 목포~장흥 방면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오리를 운반하던 4.5t 트럭이 카니발 승합차를 들이쳤다.

이 사고로 트럭 적재함 일부가 도로에 떨어지면서 오리 수십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명 피해나 2차 사고는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두 차량 운전자가 보험처리키로 한 점을 토대로 안전조치 뒤 사건을 종결했다.

영암=강원훈 기자

시비 붙은 행인에 무차별 주먹질 30대 입건

광주 동부경찰서는 17일 시비가 붙은 행인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김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달 3일 오전 6시께 광주 동구 계림동 한 길에서 어깨를 부딪힌 정모(32)씨에게 수차례 주먹질, 전차 8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만취한 김씨는 어깨를 부딪힌 정씨가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만남 빙자 수백만 원 빼앗은 10대들 구속

조건만남을 빙자해 만난 남성을 협박해 돈을 빼앗은 10대 4명이 구속됐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17일 특수강도 혐의로 A(18)양 등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22일 오전 4시10분께 전주시 금암동의 한 모텔에서 B(36)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등 같은 달 20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모두 4명에게 55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조건만남을 하겠다고 남성을 피어낸 뒤 남성과 모텔로 들어가면 일당인 C(17)군 등 3명이 따라 들어가 협박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C군은 "내가 A의 친오빠다. 미성년자와 무슨 짓이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

광주·전남 소방관

폭행을 상반기 6건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출동 소방관에 대한 폭행이 올해 상반기에 6건 발생하는 등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홍철호(경기 김포 을)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구조·구급 업무 중 소방공무원 폭행 및 폭언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광주와 전남지역 소방관에 대한 폭행은 각각 5건, 1건이 발생했다.

광주의 경우 지난해 2건에 비해 증가했으며 전남은 3건에서 1건으로 감소했다.

광주의 경우 지난 2012년 3건, 2013년 6건, 2014년 1건, 2015년 5건이 발생했으며 전남은 같은 기간 각각 3건, 3건, 6건, 2015년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국적(올해 7월 기준)으로 소방관 폭행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로 26건이 발생했으며 경기 19건, 충남 10건, 부산 7건 순이다.

소방기반법 제50조 제1호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홍철호 의원은 "119신고자가 주취 또는 자해·자살 시도 등의 위험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인지할 경우 경찰과 구급대가 동시에 출동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상습 주취 및 폭행 경력자에 대한 별도의 정보를 공유하는 등 대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치매 아직 괜찮아 17일 오후 대구 중구 경상감영공원 일대에서 열린 '2017 중구 어르신 한마당' 행사를 찾은 어르신들이 치매예방 보드게임을 하고 있다.

생태계 교란 위험 '침입외래식물 유입' 전남 급증

전남지역에 침입외래식물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생태계 교란 위험성이 커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침입외래식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국내에 유입된 침입외래식물은 총 320종으로 30%에 달하는 96종이 2001년부터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개항이후부터 1950년까지 67종(20.9%), 1951년부터 2000년까지 157종(49.1%), 2001년부터 올해 10월까지 96종(30%)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나 유입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87종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은 164종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또 광주는 56종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지역에 유입된 침입외래식물은 나도닭의장풀, 밤새비, 당아욱, 산방백운풀 등이며, 광주 지역은 달맞이꽃, 흰뚝말풀, 미국질경이, 큰방가지뽕 등이 대표적이다.

침입외래식물 중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서양등골나물, 털물참새피, 물참새피, 도깨비가지, 애기수영, 가시박, 서양금혼초, 미국쑥부쟁이, 양미역취, 가시상추, 갯줄풀, 영국갯끈풀 등 14종은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생태계 교란 식물이다.

위 의원은 "환경부가 생태계 교란 식물 퇴치를 위해 모니터링과 퇴

치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지만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사업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 있는데다 생태계 교란 식물의 분포면적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림청도 국내에 유입된 생태계 교란 식물은 현재 심각하게 위협을 주는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 의원은 "이는 산림 생태계와 생물자원의 통합적 보전·이용 체계 구축을 임무로 하는 산림청이 안일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며 "철저한 검역을 통해 외래식물 유입을 차단하고 체계적인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우리 고유의 자생식물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신이 있어 참 다행입니다!

가족처럼, 친구처럼 오래오래~
우리 결연 언제나
우체국예금, 우체국보험이 있습니다.
쓸 때마다 즐거운 우체국 체크카드,
든든하게 힘이 되는 우체국보험,
행복한 꿈을 주는 우체국예금까지
이제, 우체국에서 만나세요~

언제나 내 곁에 ~ 우체국 예금 우체국 보험